

브라질 CUT의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 2023년 제14차 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정경운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 12. 5.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 02-2670-9221 팩스 : 02-2670-9299 전자우편 : 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1. 들어가며	1
2.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수립 배경	2
1) 노동계급 대표성과 민주주의 위기	2
2) 구조 개혁을 위한 CUT 대항 전략 재수립	3
3. 세 가지 중심축의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4
1) 노동계급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4
2)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6
3)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8
4. 나가며	9

요약

이 글에서는 브라질 최대 노동자연맹인 CUT가 2023년 10월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투쟁, 권리, 민주주의” 주제로 논의하고 결정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2022년 룰라 대통령 당선까지 우파 정치세력이 집권한 지난 7년은 1980년대 노동계급이 직면했던 군사독재 시대와 비교할 만큼 최악의 시기로 평가된다.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계급 위기가 심각해지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CUT는 2015년 이후 이전 룰라와 지우마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치운동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주의 건설과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항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전략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했다.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CUT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세 가지 중심축인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 △민주주의 강화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구성된다. 민주주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개입하려면 노동계급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CUT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 대표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확장,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 국가 산업의 재산업화를 위한 산업 계획 10+ 수립 및 금속·건설·의류·식품·화학·에너지 6개 분야의 제조산업 전국조직 창설 요구 결의안 승인 등의 결정을 하였다.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노동계급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노동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노동

조합운동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전환에 들어섰지만 구조적 조건은 쉽지 않다.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극우 세력을 막으면서 지난 PT 정권 시기에 겪었던 오류에 다시 빠지지 않고 구조 개혁을 이루려면, 관건은 노동자의 노동계급 형성과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세력 강화이다. 지난 시기와 다른, 앞으로의 CU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1. 들어가며

2023년 10월 브라질 최대 노동자연맹인 CUT(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는 “삶을 변화시키는 투쟁, 권리, 민주주의” 주제로 제14차 대의원대회(CONCUT)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대의원, 브라질 내·외 주요 인사 및 참관인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상파울루에서 4일 동안 이루어낸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CUT는 창립 40주년 기념과 함께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2022년 12월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이후 대의원대회 주제에 대해 기본단위 총회(2023년 5월 8일~6월 25일), 주별 산별조직별 대의원대회(7월 17일~8월 28일) 논의를 거쳐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이 전략은 약 10개월에 걸쳐 논의된 것으로 이후 CUT 노동조합운동의 지침이 된다.

CUT는 코포라티즘 체제를 거부하고 신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며 성장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노동자당 PT(Partido dos Trabalhadores)를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우파 정치세력에 의해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노동조합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2018년 우익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 집권 동안 2002년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 추진했던 개혁적인 국가 정책들은 폐지되거나 후퇴했고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며 브라질 정치와 경제 위기는 심화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중도좌파와 극우파의 정면 대결 속에서 치러졌고, 룰라는 결선투표에서 50.87% 득표로 당선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룰라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CUT는 정치운동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브라질의 민주주의 건설과 구조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제14차 대의원대회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글에서는 CUT의 제14차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발표 자료를 토대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수립 배경

1) 노동계급 대표성과 민주주의 위기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2022년 룰라 대통령 당선까지 우파 정치세력이 집권한 지난 7년은 1980년대 노동계급이 직면했던 군사독재 시대와 비교할 만큼 최악의 시기로 평가된다.¹⁾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계급 위기가 심각해지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을 물려받은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와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보우소나루는 이전 룰라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과 의제에 반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었다. 노동법 개악, 국가 예산 증가 제한법 제도화, 교육·사회보장·환경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 여성·원주민·흑인·성소수자(LGBTQI)에 대한 혐오와 배제, 공권력을 동원한 집회 및 시위 억압 등이 추진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등의 국민 보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7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2017년 초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노동법 개악 이후 고용 불안정성은 더 심화되었다. 노동조건에 대한 개별 노사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교섭 제도 개편, 해고 규제 완화, 노조세 폐지, 비정규 고용 합법화 등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 노동조합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다. 수십년 동안 노동조합 재정을 뒷받침해 왔던 노조세 폐지로 노동조합의 인적·물적 자원이 파괴되었고 많은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비정규 고용 합법화에 따라 비정규 고용도 증가하고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틀에 들어올 수 없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노동법 개악 이후 브라질 노동조합 조직률은 빠르게 감소했고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제기되었다. 이에 CUT는 민주주의와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에 대해 진단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노동계급 대표성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CUT의 대응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룰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의 노동정책 공약과 노동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노동개혁 내용이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²⁾

1) CUT(2023.8.15.), “Sérgio Nobre: Movimento sindical é fundamental para a sobrevivência dos mais pobres”.

2)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후보가 강조한 노동 공약 핵심은 “탈산업화와 포용적 녹색경제에 기반을

2) 구조 개혁을 위한 CUT 대항 전략 재수립

지우마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되었던 2015년 이후 CUT는 정치운동을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대항 전략을 수립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5년 제12차 대의원대회에서는 모든 조합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평가와 대항 전략 수립 과정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고, 2017년 제15차 중앙위원회(Plenária Estatutária Nacional da CUT)에서는 이전 룰라와 지우마 정부에 대한 평가와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다.³⁾

이 과정을 거쳐 CUT는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주의 건설과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항 전략을 재수립했다. 바로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 힘을 성장·강화하고 정치적 힘과의 결합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우파 세력과의 상관관계를 변화시켜 구조 변화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자본 계급 이익을 위한 축적 패턴을 유지·강화하려는 대자본 세력-국제 자본 세력-미국·유럽연합 등의 제국주의 세력-브라질 우파 세력 간의 연결 시스템과 정치·경제·군사·이데올로기 권력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이전 룰라 정부와 지우마 정부 시절에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정부와 의회에서 구조 변화를 만들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접근이다. 그리고 이 전략을 수립한 2019년 대의원대회가 CUT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⁴⁾

한편 CUT의 대항 전략은 노동자당 PT의 대항 전략과 연계된다.⁵⁾ 2017년 PT는 몇 달 동

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7년 노동개혁의 독소 조항 재검토 및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확대”였음.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노동 과제는 단체교섭 제도 등 노사관계 시스템 개편, 비정규직 일자리 규제 및 취약노동자 보호방안, 노동조합의 민주적 재정 조달 및 노조 활동 강화에 대한 방안 등임. 김경란(2022).

3) 2002년 룰라 대통령 당선 이후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전까지 PT의 집권 전략은 ‘실용주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틀 속에서 빈곤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추진과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사회변혁보다 선거승리를 중요시함. 노동조합운동은 정부 고위직에 CUT 지도자들이 대거 진출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등 대화채널이 가동되면서 파업은 자제하고 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 강해짐. 그리고 2008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조직’ 법제화가 이루어진 후 노동조합운동의 온건화는 더 강화됨. 정경운(2003).

4) CUT의 정치 전략 재수립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운(2023) 자료를 참고 바람.

안 당원들이 참여하여 토론한 예비회의를 거쳐 제6차 당대회(Congresso Nacional)를 개최하고 그 동안 PT의 집권 전략 평가와 구조 변화를 위한 정치 전략을 재수립했다. 1980년에 창당한 PT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했지만 어떻게 자본주의를 변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실현”⁶⁾이라 보고 참여민주주의를 중시했으나 선거민주주의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회변혁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의회주의와 개혁주의로 변화했고 우파 세력과 다른 계급과의 타협주의도 심화되었다. 결국 우파 세력에 의해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된 후⁷⁾ PT는 우파 정치 세력의 반격이 이루어지게 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당과 사회운동이 해야하는 역할들을 물라와 지우마 정부에 ‘아웃소싱’하여 구조 변화를 기대한 집권시기의 오류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결합으로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창출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며 민주적 사회주의(Socialismo democrático)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정치과정과 경제 관리의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 세력의 실력 성장과 강화는 필수적 요소가 된다.

3. 세 가지 중심축의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CUT는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정치 전략 수립 후 내용을 구체화하며 2023년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사회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전략을 논의했다.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중심축인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 △민주주의 강화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구성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계급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CUT가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주제는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를 위한

5) 브라질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임. 브라질 노동자당 PT는 코로라티즘 체제를 거부하고 신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한 CUT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당임. PT와 CUT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관계이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짐.

6) 오삼교(2003), p.125에서 재인용.

7) 브라질 석유공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에서 지우마 대통령은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나 우파 정치세력은 부패 혐의를 무기 삼아 지우마 대통령을 탄핵하였음.

새로운 노동조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7년 ‘반노동 반노조’ 기조의 노동개혁 추진 이후 노사관계에서의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디지털화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비공식 부문과 불안정 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조합 대표성의 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조합 조직률은 ILO 기준 2017년 16.8%에서 2019년 13.0%로 크게 감소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2017년 이후 조직률 감소의 원인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동조합 활동 약화로 인한 해산과 신규 노동조합 결성도 높지 않아 조직률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역할을 하지 않는 곳들도 많았다. 노동조합 재정 중 노조세의 의존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기대어 이름만 유지하던 노동조합들이 많았고 2017년 노조세 폐지 이후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이 위축되어 해산하는 경우도 많았다.⁸⁾ 이에 CUT는 노동조합의 40%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산업의 디지털화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 증가와 연결된다. 로봇화, 인공지능,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 변화에 따른 생산 과정 변화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조정을 가져왔다. 이것은 산업공장의 폐쇄와 이전을 초래했다. 그리고 불안정성을 합법화하는 비정형적인 계약을 통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감소했다. 기존 노동조합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었다.¹⁰⁾

노동계급 대표성의 약화는 단체교섭의 분열과 권리의 위태로움을 동반하고 기술 변화와 관련한 세계 공급 사슬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CUT는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개혁을 수행하고 불평등 제거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지역 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확장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 대표성 강화이다. 관공서, 공장, 은행과 같이 공식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앱 배달원, 특수고용노동자, 재택근무자 등 비공식적 공간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지원하고, 함께 요구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CUT가 지역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

8) 브라질 노조세는 1940년 이후 국가가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중 하나로 노동조합 재정의 근간이었음. 2008년 룰라 정부에서는 법률 11.648 제정으로 가입 노조 수에 따라 노조세를 배분받음. 김정란(2021).

9) CUT(2023.8.21.), “Democracia exige sindicatos grandes e fortes, diz presidente da CUT”.

10) 브라질 노동시장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임. 전체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낮은 소득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알약한 노동조건을 갖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김정란(2022).

한다. 특히 CUT는 사무국에 ‘운송 및 물류’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운수물류노동자연맹(CNTTL) 등 CUT 산하 노동조합들과 결합력을 높여 플랫폼·앱 배달원 및 운전기사 조직화와 투쟁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비공식 공간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행동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려면 지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대중 운동과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의 일,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노동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CUT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CUT 위원장 세르지오 노브레(Sérgio Nobre) -¹¹⁾

두 번째 방안으로 포괄적인 단체교섭 과정을 만들고 제조산업의 재산업화를 위해 금속, 건설, 의류, 식품, 화학, 에너지 6개 분야의 제조산업 전국조직(Confederação) 창설 요구 결의안을 승인했다. 10월 19일 CUT 산업 매크로섹터(CUT Industry Macrosector)에 속한 6개 산업 분야 산별연맹들(금속, 건설, 의류, 식품, 화학, 에너지)은 연방 정부 대표, 정치인,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브라질 재산업화 방향 및 생산 모델 발전과 제조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 창설 제안을 토론하고,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창설 요구 결의안을 승인했다.

제조산업 전국조직 창설은 기업별/부문별 단체교섭의 분열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결집과 밀도를 높여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한 방안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산업 부문 범위의 카테고리화, 노동자들을 재집계하며 조직화를 해야 한다. CUT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노동계급의 조직화된 투쟁을 높여내고 노동의 관점에서 국가 산업의 재산업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2)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지우마 탄핵 이후 우파 정권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노동자 권리 박탈과 주요 공공정책의 해체였다. 그리고 여성·원주민·흑인·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11) CUT(2023.10.20.), “Presidente da CUT defende atuação sindical mais próxima ao povo”.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사회의 적으로 몰아갔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했다. 브라질 민주주의가 약해질수록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통제는 더욱 커졌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는 노동계급의 위기였다.

CUT는 극우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을 공고히 하고 국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공고화는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를 의미한다. 우파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들이 많은 현실에서 노동조합 구조를 재편하고 대표성을 지닌 노동조합이 살아남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두 가지 접근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조합 모델 개혁을 통해 대표성이 없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의 첫 번째 중심축과 연결된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평등’이 노동계급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흑인,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 강화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평등에 관한 공공정책은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들이 겪는 불평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공식/비공식/다양한 계약/도시/농촌 등 다양한 유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책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비공식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가족 돌봄 책임 전가, 높은 이직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낙태 합법화,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 노동안전과 건강 문제 등은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것은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노동계급 투쟁이 이루어질 때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CUT는 ILO 협약 15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단체교섭권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 비준은 2008년 룰라 정부 시절에 요청되어 2010년 국회에서 승인되었지만 2017년 12월 테메르에 의해 거부되었다.¹²⁾ CUT는 새로운 룰라 정부에게 ILO 협약 151호 보장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요구하고, 공무원의 단체교섭이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CUT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노동조합운동의 공고화를 실행하는데 10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12) CUT(2023.8.22.), “Servidores pedem regulamentação de norma da OIT que dá direito à liberdade sindical”.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룰라 대통령의 재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좌파 세력의 집권을 가로막는 극우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맞설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지우마 탄핵 이후 우파 정부의 집권 동안 기아, 빈곤 문제는 브라질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제기되었다. 인구 고령화, 산업의 디지털화, 기후 변화 등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증가했고, 불평등 문제는 브라질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단편적인 특정 정책의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전환은 브라질 경제 위기 이후 구축된 브라질 산업 활동 저하의 원인, 산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기후 변화,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는 세계 경제적 지배 관계 등을 파악하고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노동계급의 조직화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CUT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CUT는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불평등 제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조산업 전국조직 창설 요구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것은 2023년 2월에 수립한 “산업 계획 10+(PLANO INDÚSTRIA 10+)”를 중심으로 브라질 재산업화 방향 및 생산 모델 발전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산업 계획 10+는 향후 10년 동안 브라질 국가 산업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및 조치 개발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일련의 지침과 제안이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상된 이 산업 계획은 브라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불평등을 줄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지역의 요구와 잠재력을 고려한 내용이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CUT는 산업 계획 10+를 비롯하여 브라질 재산업화가 국가 의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룰라 정부와의 관계와 의회 전선 구축을 중요시한다.

[CUT 산업 계획 10+(PLANO INDÚSTRIA 10+) : 브라질 재산업화를 위한 9가지 주요 사항]

1.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일관된 혁신 및 기술 현대화 프로세스 보장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브라질 사회의 중요한 요구 충족(주택, 위생, 이동성 및 접근성, 식량 안보, 재생 에너지 확산 등)
4. 생산 가치 사슬의 재통합 및 정교화 촉진
5. 노동자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정한 전환과 함께 환경 보존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
6. 산업을 위한 공공정책의 투명성 및 사회적 통제 보장
7. 양질의 교육 및 전문 훈련 정책 보편화
8. 지역 산업 발전, 중소기업 발전 및 협동주의 촉진
9. 산업 발전과 연계된 거시경제 및 조세 정책과 국가 산업을 촉진하는 주권 외교 정책 명시

- 자료 : CUT(2023.2.8.) 자료와 CUT(2023a) 자료를 재구성함.

CUT는 향후 10년을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브라질 산업의 생산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노동조합운동이 산업 계획 10+ 내용을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기반을 더 단단하게 하고 거시적인 의제와 함께 노동자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의 세 가지 중심축의 연결 속에서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나가며

CUT는 2019년 제1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주의 건설과 구조 개혁을 위해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결합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수립했다. 2016년 지우마 탄핵 이전 물라와 지우마 정부 시절,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정부와 의회에서 구조 변화를 만들 것이라 기대했던 오류를 평가한 후 CUT는 사회적 세력의 성장·강화와 정치적 힘의 결합으로 구조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전략 속에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2023년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 전략은 사회 세력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CUT는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운동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전환에 들어섰다.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크게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 민주주의 강화,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세 가지 중심축의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으로 구성되고 이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노동계급 대표성 강화이다. 민주주의 강화와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개입하려면 노동계급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CUT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 대표성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확장,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 국가 산업의 재산업화를 위한 산업 계획 10+ 수립, 제조산업 전국조직 창설 요구 결의안 승인 등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올해 제14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은 노동계급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노동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악화된 노동조합 구조에서 혁신하는 노동조합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이 변화를 실행하는데 CUT는 10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과 의원 선출, 2026년 룰라 대통령 당선을 중요시한다.

구조적 조건은 쉽지 않다. 룰라 정부에 대한 극우 세력의 공격, 룰라 정부와 의회 내 좌파 정치세력이 소수라는 구조적 조건에서¹³⁾ 노동조합운동은 구조 개혁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방어해야 하고, 때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극우 세력을 막으면서 지난 PT 정권 시기에 겪었던 오류에 다시 빠지지 않고 구조 개혁을 이루려면, 관건은 노동자의 노동계급 형성과 노동조합운동 강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세력 강화이다. 지난 시기와 다른, 앞으로의 CU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13) 2022년 치러진 브라질 상·하원 투표 결과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강화됨.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파 정당 의석은 513석 중 246석을 차지(48.0%)하고, 범룰라 계열은 하원 144석(28.1%), 상원 81석 중 15석(18.5%)를 얻는데 그침. 김경란(2022).

참고문헌

- 김경란. 2021. “2017년 노동개혁 이후 브라질 노조운동의 시련과 도전”,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6월호, 68-75.
- 김경란. 2022. “브라질 대선 결과와 룰라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22년 12월호, 75-83.
- 오삼교. 2003. “브라질의 새로운 좌파 정치-룰라의 당선과 노동자당(PT)의 변화-”, 『현상과인식』 Vol.27, 118-142.
- 정경윤. 2023. “제4장 브라질 좌파 정치와 대항 전략”,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연구』, 민주노총 총서 2023-03.
- CUT. 2023a. “PLANO INDÚSTRIA 10+”.
- CUT. 2023b. 「14o CONCURSO TEXTO BASE」.
- CUT. 2023.2.8. “Indústria 4.0: Movimento sindical cria plano para os próximos dez anos da indústria”
<https://cnm-cut.cut.org.br/noticias/industria-4-0-movimento-sindical-cria-plano-para-os-proximos-dez-anos-da-industr-9099>
- CUT. 2023.8.15. “Sérgio Nobre: Movimento sindical é fundamental para a sobrevivência dos mais pobres”.
<https://www.cut.org.br/noticias/sergio-nobre-movimento-sindical-e-fundamental-para-a-sobrevivencia-dos-mais-pobr-c3a9>
- CUT. 2023.8.21. “Democracia exige sindicatos grandes e fortes, diz presidente da CUT”.
<https://www.cut.org.br/noticias/democracia-exige-sindicatos-grandes-e-fortes-diz-presidente-da-cut-ce5e>
- CUT. 2023.8.22. “Servidores pedem regulamentação de norma da OIT que dá direito à liberdade sindical”.
<https://www.cut.org.br/noticias/servidores-pedem-regulamentacao-de-norma-da-oit-que-da-direito-a-liberdade-sindi-9716>
- CUT. 2023.10.20. “Presidente da CUT defende atuação sindical mais próxima ao povo”

<https://www.cut.org.br/noticias/presidente-da-cut-defende-atuacao-sindical-mais-proxima-ao-povo-da7d>